



보도	2024.11.15.(금) 석간	배포	2024.11.14.(목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팀장	양유형	(02-3145-8050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안상현	(02-3145-8052)

'24.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[잠정]

1. 개요

□ '24.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0.45%로 전월말(0.53%) 대비 0.08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39%) 대비 0.06%p 상승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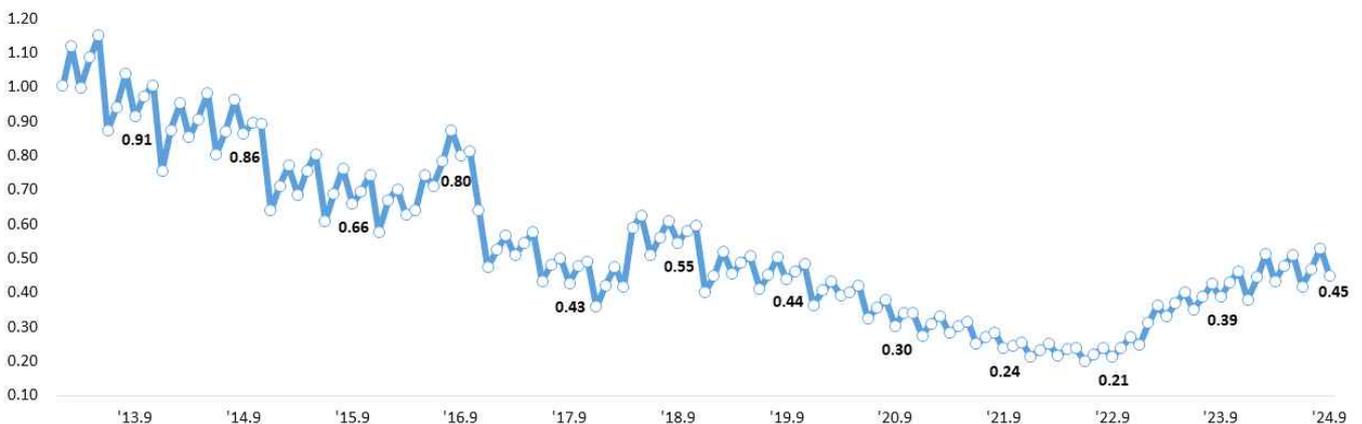
○ '24.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*(2.5조원)은 전월(3.0조원) 대비 0.5조원 감소하였으며, 연체채권 정리규모*(4.3조원)는 전월(1.4조원) 대비 2.9조원 증가

	('22.9월)	('23.9월)	('24.4월)	('24.5월)	('24.6월)	('24.7월)	('24.8월)	('24.9월)
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	1.1	2.2	2.6	2.7	2.3	2.7	3.0	2.5
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	1.7	3.0	1.5	2.0	4.4	1.5	1.4	4.3
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	△0.6	△0.8	1.1	0.8	△2.1	1.2	1.6	△1.8

○ '24.9월중 신규연체율('24.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4.8월말 대출잔액)은 0.10%로 전월(0.13%) 대비 0.03%p 하락 [전년 동월(0.10%)과 유사]

* 신규연체율(%): ('23.9) 0.10 → ('24.5) 0.12 → ('24.6) 0.10 → ('24.7) 0.12 → ('24.8) 0.13 → ('24.9) 0.10

원화대출 연체율 추이('13.1월~'24.9월)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2. 부문별 현황

- (기업대출) '24.9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52%)은 전월말(0.62%) 대비 0.10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42%) 대비 0.10%p 상승]
 - 대기기업대출 연체율(0.04%)은 전월말(0.05%) 대비 0.01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14%) 대비 0.10%p 하락]
 -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65%)은 전월말(0.78%) 대비 0.13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49%) 대비 0.16%p 상승]
 - 중소기업 연체율(0.68%)은 전월말(0.84%) 대비 0.16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52%) 대비 0.16%p 상승]
 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61%)은 전월말(0.70%) 대비 0.09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46%) 대비 0.15%p 상승]
- (가계대출) 가계대출 연체율(0.36%)은 전월말(0.40%) 대비 0.04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35%) 대비 0.01%p 상승]
 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25%)은 전월말(0.26%) 대비 0.01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24%) 대비 0.01%p 상승]
 -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69%)은 전월말(0.82%) 대비 0.13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65%) 대비 0.04%p 상승]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구 분	연체율 시계열 ('13.12월~'24.9월)	'22.9월	'23.9월 (A)	'24.6월	'24.7월	'24.8월 (B)	'24.9월 (C)	증감	
								전년동월 (C-A)	전월 (C-B)
기업대출		0.23	0.42	0.46	0.53	0.62	0.52	0.10	△0.10
대기업		0.05	0.14	0.04	0.05	0.05	0.04	△0.10	△0.01
중소기업		0.27	0.49	0.58	0.67	0.78	0.65	0.16	△0.13
중소법인		0.33	0.52	0.58	0.71	0.84	0.68	0.16	△0.16
개인사업자		0.19	0.46	0.57	0.61	0.70	0.61	0.15	△0.09
가계대출		0.19	0.35	0.36	0.38	0.40	0.36	0.01	△0.04
주택담보대출		0.12	0.24	0.24	0.25	0.26	0.25	0.01	△0.01
가계신용대출등		0.37	0.65	0.71	0.76	0.82	0.69	0.04	△0.13
원화대출계		0.21	0.39	0.42	0.47	0.53	0.45	0.06	△0.08

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- '24.9월말 연체율(0.45%)은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규모(상·매각 등)가 확대(+2.9조원)되면서 전월말 대비 $\Delta 0.08\%p$ 하락*

* 구 분	'23.9월	23.10월	23.11월	'23.12월	'24.1월	'24.2월	'24.3월	'24.4월	'24.5월	'24.6월	'24.7월	'24.8월	'24.9월
연체율	0.39	0.43	0.46	0.38	0.45	0.51	0.43	0.48	0.51	0.42	0.47	0.53	0.45
전월 변동	$\Delta 0.04$	+0.04	+0.03	$\Delta 0.08$	+0.07	+0.06	$\Delta 0.08$	+0.05	+0.03	$\Delta 0.09$	+0.05	+0.06	$\Delta 0.08$

※ 통상 분기말(연말)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(상·매각 등)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

- 최근 주요국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
 -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연체 우려차주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 대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